

# 로마가 비전을 수립하다 - 제17편

14만 4천의 최종 선별: 짐승의 우상의 예언적 시험

Jeff Pippenger

2024-09-24

십사만 사천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지금 최종적인 키질 과정 가운데 있으며, 그 과정은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것을 근거로 한 시험의 과정이다. 그 시험 과정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 후에 하나님의 다른 양 떼도 동일한 시험 과정에 직면하게 된다.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데 있어 아마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예언적 특징은 그것이 두 번 일어난다는 점이다. 먼저 미국에서, 그다음에는 온 세계에서이다. 예언적으로 이것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짐승의 우상이 짐승의 우상의 최종적인 현현이라는 뜻이며,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짐승의 우상에 앞서 있었던 짐승의 우상의 모든 예표들은 단지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2001년 9월 11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 날짜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내려왔던 1840년 8월 11일에 의해 예표되어 있었다. 10장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는 그때 개신교에 대한 심판이 진행 중임을 선포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든 먼저 경고하신다. 그리고 때를 산정하는 밀러의 방법론이 확인되면서 재림의 심판에 대한 그의 계산에 더 큰 무게가 실렸다. 개신교에 대한 시험은 1840년 8월 11일부터 진행 중이었고, 1844년까지 개신교는 로마의 딸들이 되었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기간은 2001년 9월 11일부터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기간을 예표한다.

그 두 시기는 또한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으로 나타났다. 그 세 시기는 모두, 홍수에 이르기까지 홍수 이전의 세상에 주어진 120년으로 예표되었다. 그 특정한 역사에 대한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는 언제나 있다. 말세의 이 특정한 시기를 다루는 거룩한 역사들도 있다.

노아는 백이십 년 동안 전파했고, 그 후에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 그리스도는 천이백육십 일 동안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심판이 임했다. 세례 요한의 경고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세례 때 권능을 받았고, 그 후 예수께서는 사십 일 동안 광야로 이끌리셨다. 그 사십 일과, 그 끝에 이어진 세 가지 시험은, 그분의 세례 때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과 요한계시록 10장과 18장의 두 천사의 강림처럼 거룩한 표징의 강림으로 확인되듯 메시지가 권능을 받는 순간 시험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거룩한 표징이 내려오면, 그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는 권능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 그 특정한 무리는 그들의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에야 비로소 끝나는 특정한 기간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의 연표는 증언의 두 시기를 가리킨다. 첫째는 그분이 친히 행하신 1,260일간의 증언이고, 다음은 스테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까지 제자들 앞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1,260일간의 증언이다.

그때 천사가 이르되, '그가 한 이레[7년]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하리라.'  
구주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뒤 7년 동안 복음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도록 되어  
있었으니, 그중 3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셨고, 그 후에는 사도들이 전하였다.  
'그가 그 이레의 한가운데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리라.' 다니엘 9:27. 서기 31년  
봄, 참된 희생이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드러지셨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져 희생 제사 제도의 거룩함과 의미가 떠났음을 보여 주었다. 땅의 제사와 예물이  
그칠 때가 이르렀다.

"그 한 주간—곧 7년—은 서기 34년에 끝났다. 그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은 마침내 복음 거절을 확정지었고, 박해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진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였다"(사도행전 8:4);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해자  
사울이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었다." *The Desire of Ages*, 233.

노아, 예수 그리스도, 밀러주의자들, 그리고 14만 4천의 예언의 선들은 모두, 특정한 대상  
집단이 경고의 기별로 시험을 받는 한 시기를 증언한다. 그 기별이 권능을 받는 사건은  
시험 기간의 시작을 지목하며, 그 시험 기간은 결국 그 대상 집단의 은혜의 시기가 닫히는  
것으로 끝난다. 예수의 예언의 선에서는 두 차례의 증언 기간이 확인된다. 그 두 증언  
기간은 2001년 9월 11일에 내려와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을 성취한 천사로 대표되는  
경고의 기별과, 이어서 18장 4절 이후의 둘째 음성으로 대표되는 경고의 기별이라는 두  
가지 경고의 기별을 예표한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경고를 위한 마지막 사역에서 교회들에게 두 가지 분명한  
부르심이 주어진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러하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큰 성이여. 이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가운데 하늘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음성이 들린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2년 12월 6일.

첫 번째 기간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이며,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경고와 함께 두 번째 심판 기간이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십자가에 이르는 기간은 2001년 9월 11일부터 미국의 일요일 법령까지를 상징하며,  
미국의 일요일 법령으로부터 모든 나라가 일요일을 세계적 예배의 날로 받아들일도록  
강요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가장 마지막 나라가 굴복할 때 종결된다.

그 기간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나라가 교황권에 굴복할 때 끝난다.  
두 번째 기간의 시작은 첫 번째 기간의 끝을 알리며, 둘 다 로마의 증언 속에서 이전에  
표상된 일요일 법령을 포함한다. 321년에 있었던 첫 번째 일요일 법령은 이교 로마의  
권위에 의해 시행되었다. 교황 교회의 권위로 시행된 일요일 법령은 538년으로 대표된다.  
미국의 일요일 법령은 321로, 마지막 나라에 강요되는 일요일 법령은 538로 표현된다.  
미국의 일요일 법령은, 이어서 이스라엘의 추방된 자들로 이루어진 기치에 의해 선포되는  
경고의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표시한다.

그 이정표는 321년이며, 그것은 모든 나라가 일요일 문제로 시험받는 기간의 시작을  
가리킨다. 그 기간은 마지막 국가가 로마에 굴복할 때 끝나며, 그 사건은 538년의  
이정표로 예표되었다. 321년부터 538년까지의 기간은 십자가에서부터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예표되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동안 그는

하늘 성소에서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이는 인간의 시험 기간이 끝날 때 미가엘이 일어서시는 것을 예표한다.

2001년 9월 11일은 18장 처음 세 절의 경고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날이자,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님의 한 번의 손길로 무너질 때 바로 그 세 절이 성취될 것이라고 한 여예언자 엘렌 화이트의 예언에 의해 표시된 날이었다. 또한 그것은 애국법(Patriot Act)으로도 표시되었는데, 이는 보려는 이들에게는 표징이었다. 곧, 사람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영국법의 원칙이 제쳐지고, 사람은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로 간주된다는 로마법으로 대체되었다는 뜻이었다.

미국 애국법은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 대한 심판의 시작을 알렸다. 그 기간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에서 끝난다. 그 체질의 기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그다음 18장 4절의 경고 기별을 전하게 되며, 그 기별은 로마에 굴복하는 마지막 국가에서 끝을 맺는다. 그 기간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으로 시작하여 최종 일요일 법령으로 끝난다.

두 명 이상의 증인에 의해 확인되는 짐승의 두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해한다면, 우리는 2001년에 시작된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이 나타내는 사역과 18장 4절에서 시작되는 사역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화잇 자매가 1888년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강림을 직접 동일시한 진술과, 같은 천사를 미래 시제로 언급한 진술을 적용해 보면, 1888년은 2001년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밝히는 요한계시록의 그 천사는 1888년 미니애폴리스 집회 때 내려왔고,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다시 내려왔다.

그리스도의 침례부터 십자가까지의 기간과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기간, 그리고 노아의 120년의 기간은 심판의 기간을 가리키는 세 증인이 된다. 1888년은 미니애폴리스 집회에서 기록된 반역의 드러남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며, 노아는 그 기별을 거절한 자들에게서 성령께서 떠나심을 지적한다. 홍수 이전 사람들의 반역과 1888년에 교회 지도자들의 반역은 모두 모세의 역사 속에서 고라, 단단, 아비람의 역사와 상응하며, 천사는 화잇 여사에게 그것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애국자법으로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대한 시험의 기간을 나타낸다.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는 경고의 메시지에 대한 반역은 성령께서 거두어지셨음을 드러내며, 그러므로 그 역사 속 사악한 어리석은 처녀들 위에 강한 미혹이 쏟아짐을 의미한다. 그 반역의 초점은 노아, 모세, 존스 장로와 왜그너 장로, 그리고 물론 화잇 여사로 대표되는 선택된 사자이다. 그 역사에서 경고의 메시지와 사자에 대한 반역은 열 처녀의 비유의 역사 속 '기름'에 근거한다.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기름'은 곧 경고의 기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두 부류 사이의 구분은, 밀러의 해석 규칙으로 대표되는 제1·제2천사 운동에 속한 이들이 채택한 예언 해석의 규칙들과

제3천사 운동이 채택한 예언 해석의 규칙들을 올바르게 적용함으로써 생겨난다.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표현된 그 시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짐승의 형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관련된 시험이어야 한다.

2001년의 애국법은 1888년의 블레어 법안으로 예표되었고, 그 블레어 법안은 1776년의 독립선언으로 예표되었으며, 그 독립선언은 그리스도의 세례로 예표되었고, 그리스도의 세례는 1840년 8월 11일을 예표했다. 이 모든 것은 심판의 시험 과정이 천사의 손에서 취하여 먹어야 하는 권능 있는 경고의 메시지로 시작된다는 진리를 뒷받침한다.

미국을 '네 백성의 강포한 자들'로 규정하는 예언적 가르침은 그 논리 때문에 여러 쟁점을 혼동시키며, 그 쟁점들 가운데는 짐승의 형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규정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증거 구절들이 종종 포함되어 있다. 이 시험이 본질적으로 예언적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한 가지 방법은, 예언의 기본 규칙을 사용하여 '네 백성의 강포한 자들'로 표현된 상징이 로마임을 받아들일 때에만 이해되는 어떤 진리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 도해는 재림운동 안에서 로마를 상징으로 보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던 다섯 개의 역사적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논쟁의 역사들 가운데 마지막, 곧 여섯 번째 시기에 있으며, 현재의 논쟁은 1843년 도표에 나타난 논쟁과 동일하다.

예언의 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이 진리를 쉽게 볼 수 있다. 사용해야 할 예언의 한 규칙은 상징은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어떤 본문에서 그 상징이 사용하는 의미는 그 본문 자체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는 다니엘서 11장 10절의 전투를 성취했고, 11절과 12절의 라피아 전투를 성취했으며, 15절의 파니움 전투도 성취했다. 1843년 도표에 나타난 밀러파 논쟁은, 거짓된 개신교 견해가 '강도들'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동일시하는 한편, '강도들'이 로마의 상징이라는 진리도 함께 지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처음으로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으므로, 그 절들 자체와 그 절들의 이후 역사적 반복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절들의 성취에 대한 두 가지 증거를 제공한다. 이는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 마지막 때에 관해 더 직접적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예언자의 증언이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그 확립된 규칙과 함께, 우리는 또한 화이트 자매가 "이 예언 [다니엘 11장]의 성취로 일어난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직접 기록해 둔 것도 있다.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는 교황 로마의 대리 군대로서 미국을 대표한다. 개신교도들은 그 강도들이 또 다른 안티오쿠스를 예표했다고 주장했지만, 밀러주의자들은 그것이 로마임을 알고 있었다. 현재 한쪽은 미국을 강도들로 규정하고, 다른 한쪽은 그 근본적 진리를 고수한다.

상징은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 의미는 그것들이 쓰이는 문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규칙이 옳다면, 미국을 강도들로 식별하는 것은 개신교도들이 안티오쿠스를 강도들로 식별했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제 안티오쿠스는 말세의 미국을 상징한다.

이 본문의 맥락은 어떤 권세가 비전을 확립하기 위해 스스로를 높이는가 하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 사실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정당하다. 이는 많은 증언으로 정당화된다. 로마를 상징으로 둘러싼 논쟁의 다른 역사적 흐름들에서도 같은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이란, 그 쟁점에서 잘못된 편에 선 이들이 어김없이 로마의 자리에 미국을 지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징이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그렇게 믿기는 하지만 그 규칙에 충분히 숙련되지 않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제 적용하려는 논리를 따라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모든 두 뿔 가진 권세는 말세에 미국을 상징한다. 프랑스는 소돔과 이집트로 대표되는 이중 권세다. 이슬람도 미국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세벨인 교황권과의 관계에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헤로디아에게 복종하는 살로메이다. 발람도 거짓 선지자의 상징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거짓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더 복잡하다.

그가 이스라엘을 세 번 축복한 뒤 기록된 발람의 예언들은 여러 방식으로 이슬람과 연관되어 있다. 나귀는 이슬람의 상징이며, 발람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나귀를 빼놓을 수 없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은 발람의 예언에 의해 인도되었다. 요한계시록 9장의 세 화와 관련된 이슬람은 거짓 선지자 무함마드를 나타낸다.

상징이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많은 진리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징으로 표현된다는 것도 분명 이해할 것이다. 그 환상을 입증하는 상징은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이며, 그러므로 성경 예언 전반에서 로마가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로마를 나타내는 고전적이고 확립된 상징 가운데 하나는 다니엘 11장의 북방 왕이다. 그를 도울 자 없이 그의 끝에 이르는 북방 왕은 교황권, 로마 교회, 로마의 교황, 죄의 사람이다.

유라이어 스미스의 논쟁에서 36절의 '북방 왕'은 프랑스이고, 40절의 '북방 왕'은 터키라고 주장되었다. 프랑스와 터키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미국을 상징하지만, 개신교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러하듯이, 스미스는 '북방 왕'이 현대 로마의 상징이라는 진리를 거부하고, 로마의 상징이 프랑스라는 국가에서 미국의 상징으로 대표된다고 주장했으며, 다시 터키라는 국가에서도 로마의 상징을 그 나라에 나타난 미국의 상징으로 보았다.

이제 맥락은 세 가지 줄기로 이루어져 있다. 밀러파 역사, 유라이어 스미스의 역사, 그리고 현재이다. 그 각각의 예시에서 로마의 상징을 둘러싼 논쟁이 있으며, 로마를 미국의 상징으로 오해함으로써 그 상징이 잘못 적용되고 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the daily'를 둘러싼 논쟁의 흐름은 로마의 상징과 관련된 진리를 부정하는 데에 바로 그 동일한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이 역사에는 몇 가지 중요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유라이어 스미스의 예언적 모델의 논리는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16장의 여섯째 재앙을 잘못 적용하게 만들었다. 스미스가 요한계시록 16장을 적용함에 있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시대에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 한 것 외에도, 핵심 문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의 구체적인 구조를 보지 못한 데

있었다. 상징들의 참된 의미를 사적 해석에 따른 의미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스미스의 논리는 그 삼중 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시험으로, 그들의 영원한 구원이 그로 말미암아 결정될 것이다."

로마의 상징을 오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세 백성들이 현대 로마뿐 아니라 현대 로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시도이다. 유엔과 교황권, 그리고 미국의 결합과 관련된 예언적 특징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은 영원한 결과를 수반한다.

다니엘서에는 이 세 세력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별한 시험이 있으며,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요점을 강조하는 또 다른 특별한 시험이 있다. 윌리엄 밀러는 데살로니가후서를 연구하면서 다니엘서의 '상번제'를 이교 로마로 이해했다. 밀러는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오는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사이의 예언적 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상번제'라는 말이 이교 로마를 상징하며, 따라서 '멸망의 가증한 것'은 교황 로마를 가리킨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려는 바는,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사이의 관계가, 그 두 권세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강한 미혹을 받게 되어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문맥 속에서 제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여섯째 재앙에 대한 동일한 경고로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이교 로마로 묘사된 용과, 그 구절에서 "죄의 사람"으로 불린 짐승만이 아니라, 16장에는 거짓 선지자도 등장한다. 이 본문은 현대 로마의 삼중 연합, 곧 현대 바벨론을 구성하는 권세들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the daily'를 둘러싼 논쟁은 바로 그 동일한 마지막 때의 논쟁을 다루지만, 현대 로마를 구성하는 세 세력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함으로써 그 논쟁의 규명을 확장한다. 이 진리를 보기를 거부하는 것은 당신의 보용으로 강한 미혹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논쟁에서 미국을 약탈자라고 지목하는 이들은, 미국이 교황권 자체가 아니라 그 교황권에 종속된 존재로 거듭해서 묘사된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듯하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정치와 역사, 결혼,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서 관계를 지배하는 권력이 머리로 간주되며, 그 머리가 환상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를 높이다가 결국 몰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을 약탈자로 지목하는 논리는, 321년부터 538년에 걸쳐 상징되었고 그 후 성취된 역사를 적용하지 못한다. 미국이라는 상징은 "죄의 사람"이 드러나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 "죄의 사람"은 마지막 때에 다시 드러나며, 그가 드러나기 전에 먼저 미국이 물러나야 한다.

미국의 일요일 법령은 미국을 현대 로마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적 파멸이 도래했고 미국이 의로움과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드러낸다. 미국이 일요일 법령에서 배도할 때 드러나는 현대 로마는 교황권으로, 그때 그 자리에서 자신의 동맹인 거짓 선지자를 막 정복한 세력이다.

다니엘서의 'the daily'와 그것이 윌리엄 밀러의 메시지와 맺는 관계, 밀러의 이해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의 중요성, 그리고 여섯째 재앙에서 옷을 지키라는 경고는 모두, 오늘의 현안을 다루는 그 논쟁들에서 나온 요소들을 가리킨다.

말세를 위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경고는, 미국을 하나의 상징으로 식별하지만 미국과 교황 로마의 관계를 다루는 빛의 인도를 받기를 거부하는 한 부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교황 로마와 미국의 관계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의 용의 권세인 유엔과의 관계도 보게 될 것이다.

화이트 자매가 원인에서 결과로 추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던 우라이어 스미스, A.G. 대니얼스, W.W. 프레스콧과 마찬가지로, 말세에 이 세 권세의 관계를 상세히 밝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지침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논쟁, 현재의 논쟁, 그리고 우라이어 스미스를 둘러싼 논쟁들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후서와 여섯째 재앙에서 나타나는 세 세력의 관계에 관한 논쟁은 미국을 가리키는 사사로운 해석을 드러내지만, 그들의 그릇된 개념을 드러내고 어찌면 그들을 빛으로 이끌 수도 있는 미국의 어떤 예언적 특징은 보려 하지 않는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요엘의 네 곤충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실상 그 곤충들은 가톨릭과 배도한 개신교 신학의 도입으로 인해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쇠퇴하는 것을 상징했다. 다시 말해, 그 네 곤충에 대한 올바른 적용은 로마이지만, 사적 해석은 그것이 이슬람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슬람은 거짓 선지자의 상징이므로 따라서 미국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줄 위에 줄, 우리가 방금 다룬 재림운동 역사 속의 논쟁들은 모두 같은 진리를 말해 준다.

잘못된 측은 네 증인의 증언에 근거하여 강도가 미국이라고 지목하고, 또한 두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상징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잘못된 측의 이해는 틀렸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십사만 사천에 속할 후보자들은 지금 예언적 시험 가운데 있다. 그것은 이쪽 편이나 저쪽 편이나 하고 단순히 표만 던진다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다. 예언의 규칙들이 정확히 적용될 때에만 진정으로 올바르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시험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는 마지막 때의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깊이 공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 이단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다.

이 운동 안에서 이단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예언 해석의 규칙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 숙련도가 마땅해야 할 수준보다 약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로마가 그 환상을 확립하며, 마지막 때의 환상은 북방 왕의 최종적인 흥기와 몰락이다. 그 '왕'은 또한 '죄의 사람'이며, 그 '죄의 사람'은 '불법의 신비'이고, 또 '그 사악한 자'이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며, 그는 '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로 상징되고, 그는 현대 로마의 '수장'이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혼란스러워지고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스스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다니엘은 자기의 분깃과 자리에서 서 있다.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은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서로를 해석해 준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진리를 세상에 전해 준다. 이 예언들은 세상에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것들이 성취됨으로써, 스스로를 설명할 것이다." 크레스 컬렉션, 105.